

PEOPLE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광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전문강사 16명 배출

광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해 16명의 '농업 강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지난 2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10회, 40시간 과정의 '농업인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은 강의 스피치 기법, 자기기술서 작성, 교안 제작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겸한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지난 4월30일 강의시연회에서 '퍼머컬처, 생태텃밭 이야기', '꿀벌과 함께하는 도시양봉 이야기' 등 각기 다른 주제로 강연을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했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교육은 농업인 스스로가 지식 전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실제 현장 경험이 교육 콘텐츠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농업의 교육 다양성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농협 광주본부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 전개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열린 금요직거래장터에서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행복 나눔봉사단과 함께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은 농협과 고향주부모임이 매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고령·취약계층 농가에 점심 도시락이나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고령·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장성소방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장성군 가족행복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장성군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사고 발생 시 관계자 주도적인 총동맹을 조처,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명대피와 구조, 효과적인 사태수습·복구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됐다.

훈련에는 장성소방서를 비롯해 군청, 경찰, 군부대,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했으며, 인원 184여명과 장비 37대가 동원됐다.

이달승 장성소방서장은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속적인 반복 숙달 훈련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현장 통합지휘체계 확립과 군민의 재산·안전을 지키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광주 서구·대한민국 명장 “대선 투표하세요”

안유성 가매일식 대표, 매장 음식메뉴에 투표 독려 깃발 꽂아

마옥천 베이에르 대표, 투표빵 한정 출시...이색 콘텐츠 눈길

광주 서구가 대한민국 명장들과 손잡고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쳐 화제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안유성(가매일식 대표), 마옥천(베이에르 대표) 명장과 함께 이색 콘텐츠를 활용해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안유성 명장은 매장에서 제공되는 음식 메뉴에 ‘맛있게 드시고 6월3일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 깃발을 꽂아 유쾌한 방식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마옥천 명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빵’을 한정 출시했다.

기존 단팻빵에 기표 모양을 새기고 치아바타에 ‘6월3일’ 날짜를 새긴 이색 메뉴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안 명장은 “식사 후 깃발을 기념품처럼 챙겨가는 손님들도 있다”며 “먹는 즐거움과 함께 투표의 의미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 명장은 “김기장 서구청장님의 투표 독려 챌린지 지목을 받고 고민 끝에 ‘투표빵’을 만들게 됐다”며 “하나의 빵이 유권자들에게 투표 날짜를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유성 가매일식 대표



마옥천 베이에르 대표

한편, 서구는 지역의 일상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투표를 환기할 수 있는 생활발착형 콘텐츠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확산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 협업을 통해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 원칙 지켜야”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지·광고·판매강령교육

이승배 부사장 “편파 보도 지양...올바른 편집”

광남일보는 19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편집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취재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며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편집기자는 올바른 제목, 부제목 선정 등을 당부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취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지역신문의 기능을 살펴 지역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사 발굴을 주문했다.



광남일보는 19일 오후 본사 편집국내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수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하고,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

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확장 방법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구독자 관리 방법으로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준수, 무단투입 금지, 구독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 등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한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문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나 대형 사건 등을 보도할 때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적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제정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현대삼호, 보육시설 아동 야구장 초청 행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경기 관람...교통·식사 지원도

HD현대삼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보육시설 아동들을 야구장에 초청했다.

현대삼호는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6차전 경기에 지역 보육시설인 목포공생원 보육아동 14명과 인솔교사 3명 등 17명을 초청해 경기를 관람했다.

현대삼호는 참가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스카이박스석을 마련했으며, 교통편과 식사 및 간식 등 편의를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현대삼호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이 맘껏 웃고 뛰놀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는 회사 창립 이래 해마다 명절,



가정의 달, 추석기 등이 되면 지역사회에 물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설날을 맞아 목포공생원을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남=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김희숙 (주제일타카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기부

최고액 기부자 탄생...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도

진도군은 김희숙 (주제일타카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액인 2000만원과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도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진도에 최고액을 기부한 사람은 김희숙 대표가 처음이다.

(주제일타카는 목공, 실내장식(인테리어) 현장에서 못이나 금속 판을 목재나 금속판에 압축공기로 빠르게 박을 때 사용하는 ‘에어타카’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숙 군수는 “김희숙 대표의 고향사랑기부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금과 장학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과 지역 인재 양성 등 보배섬 진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의 30%가 답례품으로 주어진다.

2008년에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현재 장학기금 263억원을 조성해 장학금 45억원, 교육경비 55억원, 명문고 육성 사업 20억원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동구, 제4기 동구 혼밥식당 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19일 접견실에서 혼자서도 불편 없이 식당 이용이 가능한 광동진씨, 마시타 등 7개 식당과 ‘제4기 동구 혼밥식당’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동신대 산림조경학과 산림복지진흥원 채용설명회 동신대학교 산림조경학과는 최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받아 해인 5관에서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국립나주숲체원 담당자 초청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